

우리는 최근 교도소내에서의 정치범에 대한 야만적인 폭행과 보복적인 금치조치, 그리고 특히 경찰에서의 여대생에 대한 성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소식에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.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한 개인에 의하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수단으로 획득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권력의 발악적인 제도적 폭력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.

이른바 인천사태의 확대와 조작과정에서 여자 노동자들에 대하여 같은 유형의 성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이번의 성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소식이 같은 경찰서에서 계획된 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성 고문은 현 정치권력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. 이를 한 경찰관의 변태나 도착 또는 서장의 책임으로만 호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현 정치권력 자체가 도착된 변태적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뿐이다. 우리는 생명의 상징인 인간의 성을 고문수단으로 악용하는 이와같은 범죄는 창조주는 물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행위로 온 세계와 인류의 차원에서 고발되고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확신하면서 현 정권당국의 응분의 인책과 사죄를 있는 힘을 다 하여 촉구하는 바이다.

이와같은 억압하는 폭력이 이른바 합의개헌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때, 현 정권이 의도하는 개헌은 민주화를 위하고 그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부도덕한 권력의 지속을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. 우리는 이와같은 불의와 부도덕을 이 땅에서 청산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민주화와 이 사회의 인간화는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이와같은 제도적 폭력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돌들도 일어나 외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. 우리는 자신의 영예와 안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불의한 권력에의 희생이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눈물겨운 결단으로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고발한 권양의 결연한 태도를 본받아 이와같은 폭력이 바로 우리 자신과 아들, 딸들에게 향한 것임을 깨달아 그 고통에 동참하고 더불어 함께 그 불의를 시정하는데 합심할 것을 내외의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.

1986년 7월 16일